

한국의 건축가 12 - 김인호(1)

Korean Architect, Kim In-Ho

김인호, 그 짧은 삶에 대한 기록

박정우 / 계명전문대학 건축과 교수
by Park Jung-Woo

새로운 세계로의 끝없는 도전을 꿈꾸던 건축가 김인호, 그의 삶의 족적을 따라가다 보면, 먼저 그의 인간됨에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본지는 그를 끄떡이도 존경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대구건축을 이끌고 있는 김인호사단의 활동상을 소개함으로써, 대구건축의 성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김인호 교수 기념사업회가 제정한 후당건축상이 지니는 의미를 짚어 보고, 마지막으로 김인호가 남긴 주요건축작품들을 전통과 현대의 접목, 형태의 상징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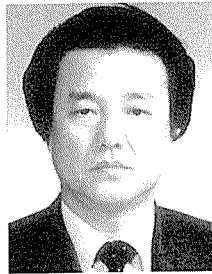
(편집자 주)

◇ 연 재 목 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종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1. 김순하 (9802~9803)
12. 김인호 (9804~9806)

1. 김인호, 그 짧은 삶에 대한 기록
2. 김인호사단의 계보 및 활동
3. 김인호의 작품세계



먼 발치에서 두어번, 그리고 어느 전시장에서 그와 나는 한 번의 악수가 만남의 전부였던 필자가 대구건축계의 거목으로 알려진 김인호선생에 대해 어떠한 형식으로든 언급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된 일이긴 하나, 다른 한편으론 선생의 그 많은 애제자분들께 송구스러움을 금할 길 없다. 혹 고인께 누(累)가 될까 늘 조심스러워하던, 그들의 선생을 향한 존경과 끊임없는 애정앞에 새삼 고

개가 숙여진다. 또한 취재에 흔쾌히 시간을 내어 준 미망인 이석주(李錫珠)여사와 큰 딸 김수양(金樹陽) 교수의 증언에서 선생의 넓고 큰 인간적 체취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부터 여기에 담겨지는 기록들은 모두가 이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작업이었음을 서두에 밝혀 감사인사에 대하고자 한다.

김인호(金仁鎬)의 생애

1991년 7월 27일 오후 3시 30분,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동 현대 제2 공원묘지에서는 뜨거운 태양아래 김인호의 유가족을 둘러싼 수십 명의 제자들이 묘비 제막식을 거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1988년 7월 28일 서거한 선생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이듬해 1989년부터 준비하여온 소위 <후당 김인호 교수 기념사업회>의 멤버들로서 수년동안 묘비제작과 더불어 김인호의 기념작품집 발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온 그의 애제자들이다. 또 한편 대구 파크관광호텔에서는 제막식이 끝나는 대로 내려올 그들과 합류하여 김인호 건축작품집 헌정식을 치루기 위하여, 또 다른 일단의 제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날은 김인호의 서거 3년이 되는 하루 전날로써, 그들은 3년 탈상하는 친자식들처럼, 온종일 그를 그리워하는 추모의 날이었던 셈이다. 영남대학교 명예교수인 한학자 서경보가 지어 쓴 묘비의 첫단락은 이렇게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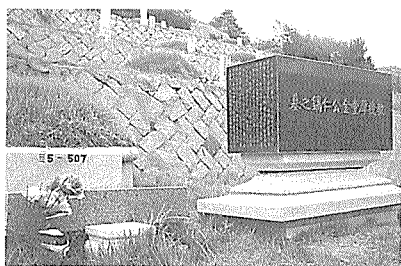
“公의諱는仁鎬요,字는德卿이요.號는厚堂이니金海金氏이다.始祖諱首露는鶻洛國太王이요,中祖諱庾信은新羅太대角干으로興武王에追尊되었으며,派祖諱不比는李朝吏曹判書니公의二十一代祖다.祖의諱는章煥이요,考

의 諱는 圭淳이니 모두 隱德이 있었고, 母夫人은 長水 黃仁善女史니 德淵公의 女로 婦德이 있다.”

김인호는 1932년 4월 21일, 경북 금릉군 개령면 서부동 324번지에서 모부인의 백일기도로 귀하게 태어났다. 그는 나중에 대구시 중구 남산동 688-9로 본적을 옮겼고, 대구시 남구 대명5동 181번지 자택에서 고혈압으로 향년 56세에 세상을 떠났다. 김인호는 어릴 적부터 풍모가 단아하였고 성품은 어질고 총명하였다. 그림그리기와 책읽기, 축구를 유난히 좋아하여 6년제 김천농림중학교 졸업과 재학시절에는 선수로 활동할 만큼 신체도 건강하였다. 김인호의 부친은 한학을 했다하고, 당시 면사무소에서 면장일을 했다하나 확인되지는 않았다. 선생이 16세 되던 해, 부친은 40세의 젊은 나이에 급성맹장으로 세상을 떠났다. 조부를 모시고 편모 슬하에서 위로 누님 한 분, 여동생 하나가 있었으니 김인호는 독자로 지냈다. 당시의 살림은 넉넉지는 않았으나, 짐작컨데 모부인의 수고가 컸던 듯하다.

김인호의 혼인은 그의 나이 29세 때로, 동료 김현산 교수(영남대학교 98년 2월 정년퇴임)의 결혼식에서 만난 신부의 후배, 이석주(당시 22세)와 맺어졌다. 이미 그는 청구대학의 조교수에 재직 중이었다. 슬하에 수양, 수희, 은정, 양희 네 딸을 두었다. 큰 딸 수양(현 37세)은 현재 가야대학교 실내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불행히도 둘째 수희는 선친의 외로움을 안타까워 했던지 그가 가고 그 몇 년 후, 교통사고로 그의 곁으로 떠나 버렸다. 셋째와 막내는 모두 출가하였다.

김인호는 자식들과 많은 시간을 나눌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곧잘 그가 설계한 건축현장에 수양과 수희를 데리고 다녔다. 수양이 회화전공을 원하던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내디자인을 전공하게 된 것은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다닌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술회하고 있다. 김인호는 세상물정에 너무 어두워 평생을 많은 사람에게 속거나 쉽게 생각하고 일을 벌였다가 재산을 잃곤 하였다. 그럴 때에도 그는 자신보다 그 사람이 더 필요해서 가져간 것이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니냐는 식으로 말하곤 하여 설계실 살림을 맡아 하는 제자들은 한편으로 그의 스승이 측근의 사람들도 챙기지 못하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그의 비범한 심성에 자신의 응졸한 마음을 오히려 책망할 때가 많았다



김인호의 묘소와 묘비



김인호 건축작품집 헌정식 행사장



미망인 이석주여사와의 대담(1998. 2. 26)

한다. 김인호는 불교 및 풍수지리에 심취하였고, 선문답을 하는 듯한 뛰어난 그의 화술은 항시 주변에 많은 이들이 찾아들게 했다. 일찍이 전통예술 전반에 많은 관심을 가졌고 많은 골동품을 수집하였으나, 원래부터 무욕한 그는 나눠 가지기를 좋아하여 좋은 물건들은 남의 손에 넘겨주고, 깨어지고 못쓰게 된 것들만 남겨두었다 한다.

그는 불법(佛法)을 생활화하였고 언제나 지치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면 태백시 대현에 있다는 현불사(現佛寺)를 찾아가 대법사 설송(雪松)스님과 담소를 나누며 며칠씩 묵고 내려 오기도 했다고 한다. 미망인 이석주여사는 아직도 그의 얘기를 꺼낼 때면 물레 눈물을 흘치곤 한다. 김인호는 잠들기 전 언제나 <묘법 연화경>을 읽으며 사색을 즐겼다고하고, 그의 불심을 더욱 깊게 해 주었던 그녀는 그의 조용하고 온화한 성품이 그녀 자신과 바뀌었던 것 같으며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건축의 길 선택하다

김천농림을 졸업한 뒤, 김인호의 가족들은 대구로 이사했다. 김인호는 당시에 대학진학을 준비하면서 의과대학과 건축과, 두 가지 원서를 써 놓고 진로에 적잖은 망설임이 있었다고 한다. 김인호가 건축으로 마음을 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5촌 외숙, 황의근(黃義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황의근은 서울대를 1947년에 졸업하였고, 서울대 건축과 교수로 1948년 9월 1일부터 1950년 7월 31일까지 재직하였으며 전공은 서양건축사였다. 황의근은 두가지 이름을 가졌는데, 서울대학교 동창회명부에는 황인영(黃仁永)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가 6.25때 월북하므로서, 김인호의 입학년도인 1952년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모부인 황인선 여사를 통하여 김천농림때부터 진로결정에 영향을 받았다 한다. 황의근의 유가족이 전하는 말을 빌면, 그는 월북이후 북에서 많은 건축활동을 하였고 지금은 작고하였다 한다.

1952년 4월, 청구대학(현 영남대학교) 건축과 야간부가 서울대, 한양대에 이어 지방에서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김인호는 4년 동안 주경야독하며 어렵사리 1956년, 1회 졸업생 14명중의 한사람이 되었다. 당시 졸업생 작품전시회가 처음으로 열렸는데, 특상을 받은 그의 작품명은 <국제학생회관>으로 백남길, 이영섭과의 공동작이었다.

스승 정경운(鄭慶雲)과의 만남

정경운은 1924년 평양출생으로, 대련(大連)공업 전문학교 건축과를 거쳐 평양공과대학 건축공학과를 1948년 9월에 입학, 1950년 8월에 졸업하였고, 1949년부터 1950년 6월까지 진남포공업전문학교 건축공학과 전임강사를 지낸 분으로, 청년기는 만주에 있었다 하고, 6.25때 공군시설장교로서 공군본부(당시 대구에 소재)에 복무하던 중 청구대학 건축과의 강사생활을 겸하게 되므로서 대구와 인연을 맺게 된 소위, 조자룡 등과 함께 대구 1세대로 일컬어지고 있는 전설적 인물이다. 청구대학 건축과 설립 당시는 서울대의 윤장섭 교수와 이용구 교수도 청구대학에 잠시 시간강사를 하던 시절이었다.

정경운은 그후 54년부터 전임강사로 임용되면서 청구대학의 건설은 물론 구(舊) 대구대학 본관(현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경북도청, 구 대구은행본점,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마스터플랜, 영남대 중앙도서관, 대구 충혼탑 등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당시 그의 작품은 대개가 보를 외관에 노출시킨 것이 특징인데, 그는 이것을 한국건축의 전통적 외관을 변용한 것이라며, 그의 건축을 코리아니즘건축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이는 김인호가 그의 문하에서 함께 설계할 당시(1955-1965)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정경운은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였고 그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을 받아 왔으나 그의 운명에는 한 대학에만 머물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무언가가 있었던 듯하다. 그는 1966년 청구대를 퇴직하고, 곧 대구대에 머무르다 1968년 두 대학이 통합하여 만들어진 영남대학교에서 1976년까지 재직하였고, 그후 정경운은 대구를 떠나 1978년에 동국대로 옮겨가 그 곳에서 1987년 정년퇴임하였다. 김인호의 건축수련에 있어서 정경운은 중요한 인물이다. 단순히 학문적인 전수만이 아닌 실무적인 건축전반에서 눈을 뜨게 한 장본인인 것이다. 정경운은 설계만이 아니라 구조나 시공에도 박식하였다 하고, 그의 제자 김인호, 김현산과 함께 작업한 작품으로는 청구대학 문화동 건물(1955)을 위시하여 청구대학 효목동 본관건물(1956), 경북대학교 법정대학(1958), 경북도청사(1965) 등이 있다. 김인호는 졸업과 동시에 동기생 김현산과 함께 청구대학 건축공학과 연구조교가 되어 김현산은 구조를, 김인호는 건축사를 전공하면서 스승 정경운의 설

계일을 받았으므로 도왔다. 그들 삼두마차의 행진은 상당한 기간동안(1966년 정경운의 청구대학 퇴직과 1967년 청구대학 신축 본관 붕괴사고를 전후한 때까지) 이어졌고, 김현산과 김인호의 협력 관계는 그후로도 다소간 지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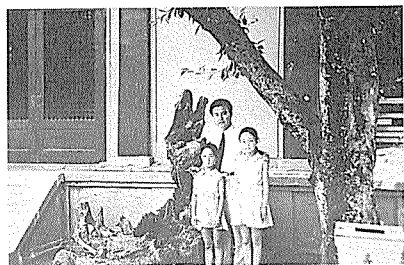
교수 김인호

1956년부터 청구대학 문화동 캠퍼스(구 국세청)에서 3년간의 연구조교를 거친 뒤, 1959년 김인호는 김현산과 함께 청구대학 건축공학과 전임강사가 된다.

김인호는 조교시절서부터 내내 전통건축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왔다. 그렇다고 이 분야의 스승이 따로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순전히 문헌을 통한 독학이 전부였다.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김인호는 1969년 불국사 복원위원회 설계소위원회 위원으로 김동현, 신영훈, 임영방, 민철홍 등과 함께 활동한 것을 위시하여, 고건축을 철근콘크리트구조화하였다는 경주 화랑의 집(1971), 경주 미추왕릉 정화사업, 영주 부석사 복원설계, 천태종 구인사 진주법당, 부산 대한불교 천태종 삼광사, 영남제일관문, 동화사 동화문 등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1960년 전임강사 김인호는 청구대학 논문집 제3집에서 <해인사 조영계획에 관한 고찰>을 발표하면서 전통건축에 대한 그의 탁월한 식견을 보여주었고 있다. 이듬해 조교수가 된 그는, 동 논문집 제4집(1961)에서 <동화사 조영계획에 관한 고찰>을, 제6집(1963)에서는 <황룡사지에 대한 고찰>을, 그리고 부교수이던 1965년에는 제8집에서 <부석사 조영계획에 대한 고찰>을 발표함으로써, 그의 한국 사찰건축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김인호가 1967년 청구대학 본관 붕괴사고로 인해 교수직을 떠나지 않았더라면, 보다 더 깊이 있고 폭넓은 연구성과가 있었을 것은 자명한 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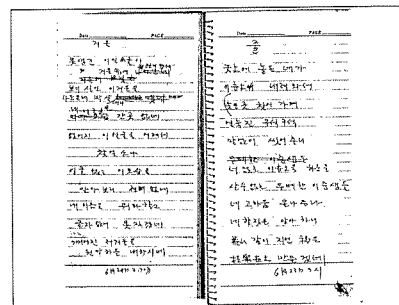
김인호는 1965년 제1회 건축사시험 집단거부사건에 동료교수 김현산과 함께 청구대학교 출신대표로 참여하였고,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건축인을 위한 건축사법이 되지 못하고 건축행정서사에게 특혜를 부여한 등등의 모순점과 부조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불행하게도 김인호는 1967년 6월 15일 오후 2시경, 그 자신이 설계한 청구대학 본관 신축건물이 6층 시공중 도괴되는 사고를 맞게 된다. 1966년



김인호와 그의 두딸 수양, 수희(1971)



경주 불국사 복원 현장. 사진의 인물은 김인호의 제자, 서정남으로 그는 김인호의 문하에서 거의 모든 전통건축의 설계를 도맡아 담당했다.



김인호 친필노트에 적힌 시조의 일부

10월에 착공된 문제의 이 건물은 청구대학 캠퍼스의 마지막 시설 확충사업이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청구대학은 이듬해, 구 대구 대학과 합병하여 영남대학교로 새로이 시작된다.

이 사건은 한국 현대건축사에 오래도록 기억될 대참사였다. 김인호가 설계했지만 1965년 건축사시험거부사건이후 그는 소신을 지켜 무면허로 있었으므로, 그 당시는 동방건축설계사무소의 최성덕 명의로 모든 허가서류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으로 김인호는 35세의 젊은 나이로 학교를 떠나야 했고, 최성덕은 건설부로부터 면허취소를 당하였다.

Y자형 평면중앙에 코어를 둔 연건평 1,850평,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당초의 3층이 착공후 학교당국의 요구로 설계변경됨)의 신축 본관 건물의 사고원인은 불합리한 구조계획, 구조계산, 시공상의 하자가 복합되어 일어난 것으로 지적되었다. 당시는 김인호가 건축학과장인 동시에 설계자였으므로 감리 책임을 면할 길이 없었다. 사고당일 김인호는 교무회의 중에 사고를 목격하였고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들이 강의실에서, 운동장에서, 도서관에서 엄청난 굉음과 먼지바람이 일어나고 공사장 인부들이 날아 떨어지는 현장을 지켜보았다 한다. 당시는 동대구역을 건설하면서 터뜨리는 암반발파작업으로 인해 인근일대에 적지 않은 진동과 소음이 있었으므로, 도괴사고의 보이지 않는 작은 영향이라도 미쳤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당시의 최해청학장은 "본설계가 3층이나, 6층이나고 질문하는 취재기자들에게 비교적 무관한 설계자를 위하여 삼가해 달라고 간청했다"(야청 기념사업회, 청구유언, 71쪽, 1987)고 한다. 사실상 대학측의 감독관으로 김인호의 대학동기이며, 조교생활까지 함께 한 이영섭이 있었으므로, 그는 현장문제에 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김인호의 평소, 맺고 끊는 냉정함이 없고 소소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어쨌든 그날 이후 전통건축의 복원과 현대건축에의 접목을 위해 학문적 경륜을 쌓아가던 학자, 김인호 교수의 운명은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바뀌어 버리게 된다.

건축가 김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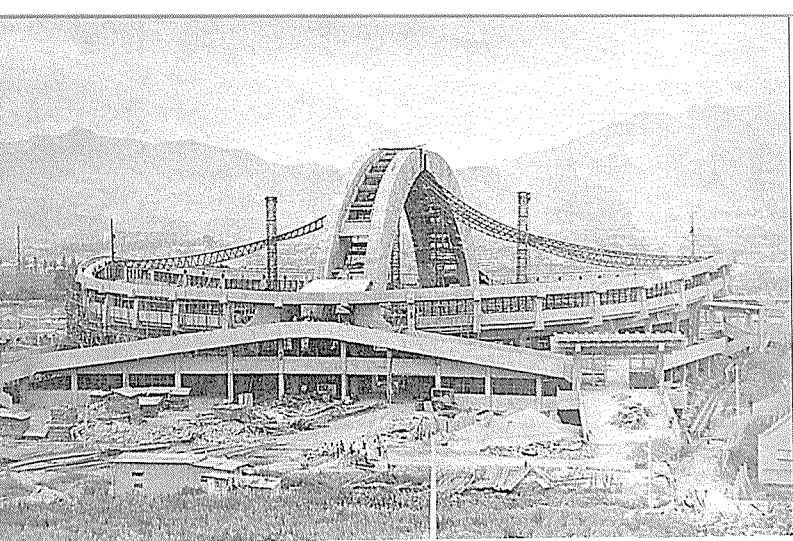
김인호의 온화하고 과묵하며, 더러는 여성스럽게 수줍어하는 그의 성품은 그의 탐구적이고 창의적인 기질과 더불어 사람들에게 하여금 그를 더욱 학자다운 사람으로 인식케 하였다. 또한 김인호의 뛰어난 화술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고, 그의 박식함과 불교철학에 바탕을 둔 그의 언행이 범상하지 않아 모두들 그를 따르고 존경하였다.

김인호는 연구실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항상 무슨 책이든 손에 들고 있었다 하고, 그의 제자들에게 건축외적인 다양한 분야의 서적들을 가까이하여 폭넓은 식견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또 건축가는 상대의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넓은 야량과 자신의 지식과 정보에 의한 자신의 주장과 철학을 끝까지 관



주저앉아버린 청구대학 본관 신축 사고현장. 그 뒷편으로 5층의 도서관(1965)과 우측의 3층건물 공학관(1960)일부가 보인다.

철시킬 수 있는 고집스러움을 서로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수많은 말을 모두 기억할 수 있다면, 훌륭한 어록 한 권 정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는 교육자적인 자세, 학자적인 생활태도가 몸에 자연스러이 배어 있는 분이였다. 그는 1966년부터 대구시 북성로 동해반점옆에 15평 남짓한 목조건물 2층을 얻어 최성덕과 함께 동방건축설계연구소를 개소하고, 제자 권태식(현 합동건축)과 이현동(작고), 김화자(현 세명건축), 이성(현 성건축), 김무권(현 현대건축) 등과 함께 일했다. 경북체육관 현상설계도 당선(1966)되고 해서, 이제 막 의욕적인 출발을 하고 있던 시점에 1967년의 청구대학 본관 신축공사 도괴사고는 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는 당시, 세세히 따질 수 없는 억울함을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일체 입밖에 내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의 변명치 않으려는 장부의 자존심과 대가다운 비범함을 읽을 수 있다. 단지 그는 크게 될 사람은 큰 아픔도 체험해 봐야 한다고 했을 뿐이다. 수개월 여 동안 빠져린 아픔의 시기를 보낸 김인호는 그를 변함없이 기다리고 있던 제자들과 함께 건축설계를 계속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거부해왔던 건축사면허시험을 치루어야 했다. 그는 한번의 실패 끝에 1969년 1월 9일, 면허번호 984로 면허를 취득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여러 대학에서 그를 교수로 모시려는 초빙제의를 있었으나, 그는 끝끝내 마다하였다 한다. 이것은 1970년대 들어 교수의 겸직불허라는 정부방침이 이미 시행되고 있던 때의 일로 짐작되는데, 그로써는 이제 와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 교육과 연구생활에 안주한다는 것이 마음에 차지 않을 만큼, 작품에 대한 열정이나 애착같은 것이 강하게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실로 건축가 김인호를 세상에 알리게 되는 첫 작품은 1966년 현상설계의 당선작인, 경북실내체육관이다. 이 작품으로 그는 1971년 10월 18일 제1회 건축대전 문화분야 건축대상을 수상했다(건축사誌 71년 11월호 게재). 실로 북성로 <동방건축>시대는 최대의 기쁨과 최악의 아픔이 함께 했던 시기이다. 김인호는 1969년, 사무실을 대구은행 구 본점 동쪽 건너편 모퉁이에 있는, 일명 사일동 누비다방 건물 4층에 내고, 새로이 <대아건축설계연구소>라 이름지었다. 이어서 로얄호텔 뒤 전동 15-1, 대동별관(호텔)8층 시절(1971-1973)을 거쳐, 중구 공평동 11-3(25시다방 2층)으로 이전하므로서 김인호 건축의 후



경북 실내체육관 공사현장. 1968년 초여름쯤으로 보인다

반기 역사(1974-1988)가 시작된다. 김인호의 사후에도 <대아>에 남아 있던 제자들은 지금도 그의 건축정신의 명맥을 이어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한국예총 대구지회장 김인호

감투가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던 김인호에게도 오랜 경륜을 통하여 적잖은 역할이 주어졌다. 학창시절 축구를 했고 많은 체육관을 설계했던 때문인지 그는 경북체육회 농구 협회장도 다년간 지냈으며, 대구직할시, 경상북도 문화재위원, 경주시 미관지구 심의위원, 한국건축가협회 대구, 경북 지부장을 5대와 9대, 두 번 역임하기도 했다. 김인호는 1985년 한국예총 대구지회장에 피선되어 건축계 뿐 아니라, 대구문화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 동안 예총산하 10개 단체중에서 경북지부장이나 대구직할시 지회장이 배출된 단체는 문인 협회와 미술협회, 그리고 사진협회뿐이었다. 김인호가 지회장이 되면서 그 동안 건축을 예술의 분야에서 도외시하던 일부의 경향들이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그는 달구벌 축제의 예산을 확보하는 등 특유의 수완으로 당시 절대부족의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각 단체간의 다툼을 평정하였다. 그의 예총활동으로 말미암아 예술계 전반에는 건축단체의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이미지가 재고되었다. 이후 김인호의 뒤를 이어 1991년 제 4대 지회장으로, 건축단체에서 추대한 계명대학교 교수 이종우가 당선되므로서, 예총 대구지회의 재도약에 이바지하게 된다.

김인호의 이상(理想)과 이상(異狀)

김인호의 꿈은 자신만의 건축세계를 누구의 간섭도 없이 마음껏 펼쳐보는 것이었다.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는 작은 프로젝트의 설계비를 차근차근 모으고 있기에는 그의 마음이 급했다. 그는 사업적인 수완이나 현실적인 감각이 전혀 없는 가운데 일찍부터 사업에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런 야망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많은 돈과 시간을 날려 버렸다. 김인호를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이 이해하기 힘든 무욕과 과욕의 양면성을 이야기한다. 그는 배포가 크다. 그리고 야망도 크다. 그런데 시작은 크나 끝은 늘 보이지 않는다. 그의 자

존심 그득한 설계의 옹의주도함이 사업에 제대로 반영되지는 못하였다. 김인호의 진취적이고 낭만적인 성품은 그의 행적 곳곳에 배어 있다. 1968년 대형프로젝트의 수주를 위해 주식회사 대아기술공단을 설립한 것은 당시 정부의 경제개발과 국토개발시책을 읽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1966년에 먼저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를 세워 서울의 도시계획 설계영역을 도맡았던 김수근에 자극받은 것인지도 모른다. 이후 그는 대구시 공무원 출신인 김종규에게 대표의 자리를 별 조건없이 물려주고 만다. 그는 이후로도 온천사업, 맥반석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이 생기는데로 투자하였다. 또 중금속이온이며, 광물학 등 관련문헌들을 구해다 보는데 열중하기도 했다. 당시 그의 심경은 그리 희망적이거나 순조롭지 못했던 것 같다. 그의 낙서장으로 보이는 노트에는 1983년 여름에 집중적으로 쓴 13편의 시조가 적혀 있다. 씩여진 시각도 거의 새벽1시에서 3시 사이이고, 대개는 취기가 있는 가운데 선사를 쓰듯 자연을 소재로 하였으나, 글 속에는 다소 자조적이고 한스러움이 비치고, 또 현실을 초월하려는 의지로 해석되는 부분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 하나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인생〉 돌았구나 돌았도다/ 몇바퀴나 돌았는고/ 육도윤희 돌고 돌아/ 오만 고통 다 받았소/ 이제사 철이 들어/ 진면목을 갖추우니/ 오늘도 극락이오/ 내일도 극락이네/ 불쌍한 이 중생아/ 내 뒤를 따라오소

그의 말년에는 거대한 한려관광개발계획을 세우고 거제도에 토지매입까지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운명하였고, 현지 대리인의 사기로 인해 아직도 소유권문제가 미결상태에 있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일들은 김인호에게서 끊이지 않았던 모양으로 그런 까닭에 건축활동에만 전념해 주기를 바라던 오랜 제자들은 하나둘 스승을 떠났고, 그는 그 때마다 헤어지는 서운함보다 독립하는 그들에게 다소나마 챙겨주지 못하는 안스러움이 컸으리라 짐작된다. 사무실에서는 향시 향을 피우고 묵상에 잠기거나 독서에 빠져들었고, 설계책상에서는 절대 앉아서 그리지 않았고 다리의 피로를 생각해서 발을 바꾸어가며 외다리로 작도하던 그의 독특한 습관이나 성현의 가르침과도 같은 말 등은 아직도 그의 많은 제자들 가슴에 살아 있다.

한국건축가협회에서 발간한 <한국의 현대건축 1876-1990> 167쪽에는 다음과 같이 짙막하게 김인호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다. "대아건축설계연구소를 통해 주로 대구, 경북지역의 건축진흥과 역사건축의 근대적 공법개발 등의 업적을 남기고 타계하였다." (계속)